

디자인의 힘! 기아 K 10년새 550만대... 지금도 전성기

〈K3·K5·K7·K9〉

‘K5’ 美·유럽, ‘K3’ 신흥시장서 인기
‘K7프리미어’ 월평균 7000대 판매
K시리즈, 15건 넘는 디자인상 수상



기아차 신형 K5.

기아자동차 디자인의 상징인 ‘타이거 노즈(호랑이 코)’ 라이에이터 그릴을 적용하며 디자인 혁신을 불러 일으킨 기아차 대표 세단 ‘K 시리즈’가 출시 10년을 맞았다. 신모델 출시 때마다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K 시리즈는 지난 10년간 550만대가 팔려나가며 기아차의 세단 판매를 이끌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 시리즈는 2009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세계 시장에서 총 548만 8121대(공장 판매 기준)가 팔려나갔다. 이는 같은 기간 기아차 전체 판매(상용차 포함)의 19.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아차가 판매한 차량 5대 중 1대가 K 시리즈인 셈이다.

차종별로는 K3가 253만 3238대, K5가 244만 9550대로 많이 팔렸다. K7(44만 6286대), K9(5만 9047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국내 127만 303대, 수출 156만 1635대, 해외공장 판매 265만 6183대를 기록해 해외 판매 비중이 76.9%를 차지했다.

K5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고, K3는 신흥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K 시리즈의 역사는 기아차가 2009년



기아차 K7

11월 24일 준대형 세단 K7을 국내에 출시되면서 시작했다. 당시 기아차는 모델명과 관련, 알파벳 ‘K’는 기아차(Kia), 대한민국(Korea)의 대표 글자인 동시에 ‘강함, 지배,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ratos’에서 따왔다고 소개했다.

K7 작명을 위해 15개월 넘게 해외 네이밍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았고, 뇌과학자로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와 함께 차명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다.

K7 출시 다음해 중형 세단 K5를 선보인 기아차는 2012년 준중형 세단 K3과 럭셔리 대형 세단 K9을 함께 내놓으며 K 시리즈 라인업을 완성했다. K3·K5·K7처럼 영문 알파벳에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의 작명법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해당 차량들은 새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기존 디자인 정체성을 이어가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시도로 기아차 디자인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

년 K5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한국차 브랜드 최초로 자동차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K 시리즈가 수상한 디자인상은 15건이 넘는다.

K 시리즈는 경쟁이 치열한 중대형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K7은 출시 직후 ‘국가대표급’으로 불리는 현대 그랜저를 분기별 판매에서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K5 역시 ‘국민차’ 쏘나타를 월간 판매 실적에서 제치는 등 저력을 보였다.

기아차는 올해 하반기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한 K7 프리미어가 월평균 7000대씩 팔리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돌아온 K5가 지난달 사전예약 사활 만에 1만28대 계약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관심을 받고 있어 K 시리즈 ‘제2의 전성기’가 열릴지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인천시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노선 없이 실시간 호출로 배차·운영



인천 영종국제도시서 시범 운영중인 I-MOD

현대자동차가 인천시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현대차는 인천시와 현대차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컨소시엄에는 현대차, 현대오트모버, 씨엘, 연세대학교, 인천스마트시티가 참여한다.

I-MOD는 승객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경로가 생성되고 배차가 이뤄지는 수요응답형 버스다.

현대차 컨소시엄과 인천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선정된 ‘인천시 사회참여형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서비스를 구체화해 I-MOD 플랫폼을 구축했다.

시범 서비스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영종국제도시 350여개 버스 정류장을 통해 제공되며 쏘라티 16인승 차량 8대로 운영된다.

기존 버스가 승객 유무와 관계 없이 정해진 노선의 버스 정류장마다 정차하는 것과 달리 I-MOD는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에 맞춰 실시간으로 정류장을 정해 운행한다.

I-MOD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분석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을 배차하고, 신규 호출 발생시 운행 중인 차량과 경로가 비슷할 경우 합승시키도록 경로 구성 및 배차가 이뤄진다.

현대차는 I-MOD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기반 최적 경로 탐색 및 배차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현대오트모버가 I-MOD 플랫폼과 앱 개발, 버스공유 플랫폼 개발업체 씨엘이 차량 서비스 운영, 연세대가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 인천스마트시티가 스마트시티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인천시가 조례 개정 및 행정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I-MOD는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점은 기존 버스와 동일하지만 고정된 노선 없이 실시간 호출에 의해 배차되고 운행되므로 시민의 차량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이 단축돼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양성운 기자

세계 석학들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첫 포문

네이버, 글로벌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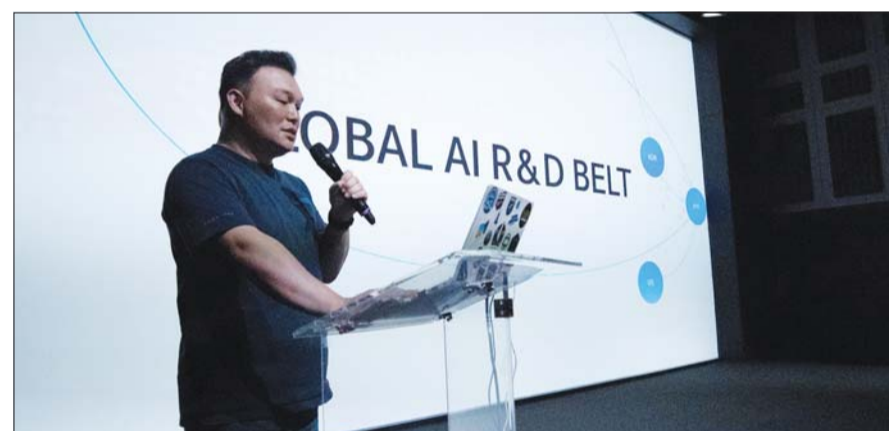
AI·로봇 석학 11명과 의견 공유·토론
지난 10월 ‘글로벌 AI 연구벨트’ 구축

네이버(주)가 11월 28~29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석학 11명과 함께 AI와 로봇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글로벌 워크숍 ‘AI for Robotics(로보틱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네이버의 글로벌 AI 연구소 네이버랩스유럽 주최로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양일에 걸쳐 ‘로봇이 일상 생활 속에 사람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네이버, 글로벌 최전선에서 ‘혁신’ 화두 이끌어

참석자들은 로봇이 물리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컴퓨터/3D 비전, 로봇틱스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들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AI를 활용해 ▲로봇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 ▲사람과 로봇 사이의 더욱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이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가 11월 25일(현지시간) 파리 스테이션F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프랑스 스타트업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AI 연구 벨트를 소개하고 있다. /네이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로봇·AI 기술의 성장을 도모해 나간다.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마틴 후엔버거 네이버랩스유럽 연구 디렉터는 “로봇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 스스로 학습하고 작동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며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교류·협력하는 이번 워크숍이 이러한 미래가 조금 더 빨리 다가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상배 MIT 교수는 “로봇과 AI 두 가지를 잘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도전”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올 담론들이 만들어 낼 혁신과, 이러한 최신 논의들이 한국 IT

기업에 의해 리딩된다든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부연했다.

◆네이버, 프랑스 스타트업과도 협력 모색

한편, 이번 워크숍은 네이버가 구축을 추진 중인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의 첫 시작점이기도 하다. 네이버는 지난 10월 미국의 구글·아마존·애플과 중국의 바이두·알리바바에 맞설 수 있도록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AI 연구 벨트’를 구축을 선언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제3의 글로벌 기술 연구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해당 벨트에는 최근 소프트뱅크와 함께 경영 통합을 선언한 라인과 야후재팬 역시 이 글로벌 흐름에 힘을 보탠다. /구서윤 기자 yun2514@

LG하우시스, 여의도서 서울역으로 이전

LG하우시스가 서울 여의도 IFC에서 중구 LG서울역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LG하우시스는 11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사이전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1년 12월 IFC에 입주했고 2019년 12월 31일 IFC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이전을 하게 됐

다. 오는 20일 종무식 이후 12월말까지 이전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LG서울역 빌딩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 교통 요지로의 본사이전을 통해 울산·청주 공장 및 전국의 영업소와의 접근성 증대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르노삼성, 내일 부산서 ‘르노 트위지’ 선보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는 3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에 르노 트위지를 전시하고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이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오는 3일 부산 이마트 문현점에서 열리는 ‘2019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에는 르노 트위지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6종의 초소형 전기차 전시된다.

누구나 구매 상담과 시승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르노삼성은 작은 차체와 주차의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편의성 등을 앞세운 르노 트위지를 미래형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